

부동산 PF 사업장 규모, 재구조화·정리 대상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.

- 일부 언론의 5.13일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일부 언론은 「부동산 PF의 “질서있는 연락처” 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」에 대한 기사에서,
 - “50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이중 150여 곳은 다음 달부터 상각 또는 경·공매 절차를 밟는다.”
 - “최대 23조원 부동산 부실PF 정리 돌입한다.” , “PF 만기 4회 연장시 바로 퇴출한다.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기사에 언급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수 등은 발표된 수치가 아니며, 사업성 평가는 금융회사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구조화·정리 대상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
- 또한, 여신만기 4회 연장 시에도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영수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	배수암 (02-2100-2833)
	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종오 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 장	문선기 (02-3145-6880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